

영어교육 73권 2호 2018년 여름
DOI: 10.15858/engtea.73.2.201806.161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단어 강세에 대한 인식과 비강세 모음 /ə/ 발음에 관한 연구

신혜진*

(조종고등학교)

유원호

(서강대학교)

Shin, Hyejin, & Yoo, Isaiah WonHo. (2018).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word stress in English and their pronunciation of the reduced vowel /ə/. *English Teaching*, 73(2), 161-17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important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 English word stress to be, how familiar they are with word stress, and how well they pronounce the reduced vowel /ə/. Sixty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participated in a survey study that investigated their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word stress in English. They were then asked to mark the stress on each of the 44 words selected from the basic vocabulary list compil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to pronounce each word twice. The results of the survey revealed that a vast majority of the students (50 out of 60, 80%) do not pay attention to the stress and pronunciation of words when they study new vocabulary and that they memorize only the spelling and meaning of new words. As a result, many of them could not identify the stressed syllables in many of the 44 words, even when they knew their meaning. As for their pronunciation of the reduced vowel /ə/, the students on average were able to pronounce /ə/ correctly in only 23 words, although they stressed the correct syllable in 28 words. All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cessity of teaching Korean students explicitly the importance of word stress in English and the correct pronunciation of the reduced vowel /ə/ in order to help them improve their intelligibility.

Key words: 비강세 모음(schwa), 단어 강세(word stress), 초분절음(supra-segmentals), 발음 교육(pronunciation teaching)

* 신혜진: 제1저자; 유원호: 교신저자

1. 서론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다양한 음성자료 활용 및 활동중심 수업을 통한 영어 교육이 예전보다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영어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이상적인 음성·발음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음은 반복적으로 발화하여 내재화시켜야 하는데 중·고등학교에서 듣기와 읽기 위주의 수업을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발음을 제대로 학습하여 내재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한국인들이 영어발음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분절음적(segmental) 요소이고 둘째는 초분절음적(suprasegmental) 요소이다. 영어 학습자들은 주로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영어의 자음과 모음을 연습하는 분절음적 요소에 집중한다. 하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강세(stress), 리듬(rhythm), 억양(intonation)을 포함한 초분절음적인 요소도 학습해야 한다. 특히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영어의 초분절음적 요소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어는 음절박자 언어(syllable-timed language)인 것에 반해 영어는 강세박자 언어(stress-timed language)이기 때문이다(강민경, 전지현, 2013; 김수정, 2005; 김지은, 2014; 김지은, 윤규철, 2013; 김희성, 서미선, 신지영, 김기호, 2005; 유원호, 2016, 2017; Celce-Murcia, Brinton, & Goodwin, 2010).

영단어의 발음을 올바르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강세를 제대로 실현하느냐가 관건이다. 한 음절마다 비교적 일정하게 강세가 주어지는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는 어느 음절에 강세를 두느냐에 따라 리듬이 형성되고 그 리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강세 실현이 중요하다. 영어의 리듬은 강세가 있는 음절에는 강도(intensity), 음도(pitch), 길이(length)를 더 두드러지게 발화하고, 강세가 없는 음절에서는 이를 약화시켜 완성한다. 강세가 있는 음절의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가 없는 음절의 모음을 약화시켜 발음해야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김수정, 2005; 유원호, 2016, 2017).

이렇게 강세를 받지 않아 약화된(reduced) 모음들 중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모음은 /ə/이다(김수정, 2005; 조현관 2010). 제2언어 학습자들은 약화된 음절의 발음을 명시적으로 지도 받지 않으면 이를 자연스럽게 발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있는 모음의 실현이나 오류에 비해 비강세 모음에 관한 관심이나 인식이 미미하다(김수정, 2005). 비강세 모음을 정확히 발화하지 못하면 리듬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ə/는 영어 학습자들이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훈련 받아야 하는 중요한 모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강세 모음 /ə/의 음성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단어 강세에 대한 인식과 /ə/ 발음의 정확도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단어 강세 학습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학생들은 단어의 강세를 정확히 표기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
3. 학생들은 비강세 모음 /ə/을 약모음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4. 학생들의 /ə/ 모음 발음의 오류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영어 단어의 올바른 강세 패턴을 실현하는 것은 영어학습자의 영어 발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비 원어민 화자가 단어의 모든 소리를 정확히 발음하더라도 강세를 잘못된 음절에 부여하면 원어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다(Celce-Murcia, Brinton, & Goodwin, 2010). 강민경과 전지현(2013)은 강세는 영어발음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자질이고, 정확한 강세의 구현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Park(2006)은 한국인 대학생 51명에게 영단어 강세 인지와 발화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의 가장 흔한 오류는 단어의 첫 음절에 강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observer*, *interpret*와 같은 단어의 첫 음절에 강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오류는 첫 음절의 음도를 높게 발화하는 한국어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며, 한국인에게 단어강세를 가르칠 때는 첫 음절에 강세가 없는 단어를 위주로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Park은 제안하였다.

박순복(2004)은 하위권 대학생들의 강세 오류를 연구하기 위해 충남 소재 대학교의 2·4학년 중 모의 토익시험에서 하위권 점수를 받은 20명에게 120개의 단어를 발음하게 하였다. 그 중 분석이 불가능한 3명의 음성 자료를 제외한 17명의 음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음절의 수가 많아질수록 강세 오류의 빈도도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강세 위치별 오류에 관해서는 Park(2006)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logical*, *democratic*와 같은 단어에서 두 번째 음절에 잘못 강세를 부여하는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박순복은 “한국어 강세가 영어 단어 강세에 전이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p. 187).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단어강세 습득 여부에 초점을 맞춘 Park(2006)과 박순복(2004)의 연구와 달리 김희성, 서미선, 신지영, 김기호(2005)와 김수정(2005)은 학습자들의 발음을 원어민 화자의 발음과 비교·분석하였다. 김희성 외 3인은 한국인 초급 영어 학습자 10명의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의 발음과 원어민 화자 4명의 발음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급 영어 학습자들과 원어민 화자의 강음절 발음은 음도와 강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길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학습자들이 강음절을 높고, 크게는 발음하지만 원어민처럼 길게 발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약음절 발음 또한 원어민의 약음절

발음만큼 짧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원어민에 비해 강음절은 짧고 약음절은 길게 발음하였다.

김수정(2005)은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대학생 각 4명의 약모음 /ə/ 발음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화자들이 비강세 모음을 약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강세 모음을 비강세 모음 보다 높은 음도로만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김지은(2014)은 영어의 초분절음에 관해 학습한 한국인 24명의 발음을 분석한 결과 이 학생들의 비강세 모음 발음이 원어민 화자들의 발음과 매우 비슷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김지은은 한국인 학습자들이 강세와 비강세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비강세 모음을 약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현관(2010)에 따르면 비강세 모음 /ə/의 특징은 비음소적(non-phonemic) 모음, 중성화된(neutralized) 모음 중앙화된(centralized) 모음 등으로 기술될 수 있다. 그는 포먼트(formant) 측정수치를 토대로 미국인과 캐나다인의 /ə/ 발음과 한국어의 모음을 비교하여 어두의 /ə/는 ‘어’, 어중의 /ə/는 ‘으’, 어말의 /ə/는 ‘아’와 가장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ə/를 단어 내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후설모음 /어/와 가깝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두의 /ə/는 /어/, 어중의 /ə/는 /으/, 어말의 /ə/는 /아/로 각각 대치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제안하였다.¹ 본 연구에서는 조현관이 제안한 /ə/ 발음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비강세 모음 /ə/ 발음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ə/ 발음의 오류 실태를 조사하여 정확한 /ə/ 발음 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과 실험 자료

본 연구에는 서울 관악구 소재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기고사 성적을 고려하여 상(심화)·중(기본)·하(보충)의 세 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상·중·하반 학생들 모두를 실험대상으로 참여시키려고 하였으나 파일럿 실험에서 하반 피험자들

¹ 조현관(2010)은 America는 ‘어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커’ 등으로 발음하는 것보다 ‘어메리카’로 발음하는 것이 “좀 더 원어민의 발음과 유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p. 370). 그러나, ‘어메리카’보다는 ‘어메뤼까’가 원어민의 발음과 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음절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음절에도 강세가 없으므로 모음이 /ə/로 발음이 된다. (사전에 다른 비강세 모음인 /ɪ/로 표기되어 있지만 /ɪ/는 한국인이 발음하기 가장 어려운 모음이며 많은 원어민들도 America의 세 번째 모음을 /ə/로 발음한다.) 마지막 음절이 ‘까’로 발음되는 이유는 강세가 없는 /k/의 이음(allophone)은 한국어의 ‘ㄱ’와 유사하기 때문이다(유원호, 2016, 2017).

중 강세 실현 이전에 단어 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 강세 판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되어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로는 하반을 제외한 상반 학생 35명(남 21명, 여 14명)과 중반 학생 25명(남 8명, 여 17명)으로 총 60명을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될 단어는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과 2009개정 교육과정 기본어휘목록에서 선정하였다.² 총 2,988개 단어 중 초등학교 단어군 798개를 제외한 2190개의 중학교 단어 군에서 아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ə/ 발음이 포함된 44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단어

단어 음절 수	강세가 있는 음절	단어	단어 수
2음절어	첫 번째	happen, local, method, urban, weapon, woman	13
	두 번째	occur, achieve, supreme, machine, Japan, command, suppose	
3음절어	첫 번째	concentrate, camera, holiday, politics, flexible, modify, policy, relevant, sensitive, visible, estimate, terrible	17
	두 번째	museum, vanilla, familiar, umbrella, banana	
4음절어	첫 번째	comfortable, temporary	14
	두 번째	America, apologize, responsible, identity, economy, authority, immediate, community, compatible, democracy	
	세 번째	academic, combination	
총 단어 수		44	

실험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세 개의 파트(Part)로 구성되었다(부록 참고). Part I에서는 강세에 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 및 학습상황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1~3번은 영어단어 학습 방법 및 발음 강세 학습 방법에 관한 문항이다. 평소 학생들이 영어단어를 학습할 때 발음이나 강세보다는 철자와 의미 위주로 학습한다고 추정하고 그렇게 학습하는 이유를 물어 강세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발음이나 강세를 학습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보고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발음 및 강세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4~5번 문항에서는 영어단어 강세가 발음과 의사소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학교 영어시간에 강세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험자의 생각을 5개의 scale(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안에서 표기하게 하여 강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Part II에서는 주어진 단어 44개의 뜻을 쓰게 하고 단어를 읽어보면서 본인

² 김선희(2006)도 한국의 초·중등 영어 교육과정 기본어휘목록에 포함된 어휘들이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어휘들이라고 가정하고 그 단어들의 강세패턴을 분석하였다.

이 옳다고 생각하는 음절의 모음 위에 강세를 표시하게 하여 강세를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표기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표기한 강세를 바탕으로 Part III에서는 모든 단어를 두 번씩 발화하게 하여 강세와 비강세 모음 /ə/의 발음 실현과정을 녹음·분석하였다. 후에 강세를 정확히 실현한 단어들만 선별하여 /ə/ 발음의 실현률을 측정하였다.

3.2. 실험절차 및 자료분석방법

영어학습실에 모인 학생들은 설문지에 있는 단어강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문항에 답하고, 주어진 단어에 뜻과 강세를 표기하였다. 강세는 모르는 것이 있어도 본인이 발음해 보고 강세가 있을 것 같은 음절을 최대한 예측하여 표기하게 하였다. 그 후 자신이 표기한 강세를 바탕으로 단어를 두 번씩 발음하게 하였다. 단어를 발화할 때 학생들에게 김희성 외 3인(2005)의 주장처럼 강세음절을 세게, 높게, 길게 발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ə/의 실현을 음성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과 피치곡선으로 기준을 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ə/ 측정 기준을 기존 연구들에 근거하여 단순화시키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영어 교육 분야의 시각에서 교사들에게 비강세 모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ə/ 발음을 음성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강세 모음 /ə/의 변이음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모음과 비교 분석한 조현관(2010)의 주장에 근거하여 /ə/를 측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조현관(2010)은 어두에 나오는 /ə/는 한국어 모음 ‘어’와, 어중에 나오는 /ə/는 한국어 모음 ‘으’와, 어말에 나오는 /ə/는 한국어 모음 ‘아’와 가장 비슷하게 발음 나는 소리라고 여기는 것이 최대한 원어민의 /ə/ 발음에 가까울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단어 중에는 어말에 /ə/가 나오는 단어가 없으므로 학생들이 /ə/를 ‘어’ 또는 ‘으’로 발음하면 /ə/의 정확한 발음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ə/ 발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첫째는 강세를 그 음절에 주지 않는 것과 둘째는 ‘어’ 또는 ‘으’로 발음하는 것이라고 정하여 채택하였다. 녹음에 앞서 학생들에게 강세가 있는 음절을 두드러지게 발화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강세 없는 음절의 /ə/ 발음 실행 유무 구분을 더욱 명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4.1. 단어강세 학습에 관한 인식 조사

설문지의 Part I에는 영어 단어 발음의 학습 여부와 방법, 강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평소 영어점수 등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문항인 영어 강세 학습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영어 단어를 학습할 때 철자와 뜻만 주로 외운다는 응답이 50명(83.3%)이었고, 철자 및 뜻과 함께 발음과 강세도 함께 학습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0명(16.7%)이었다. 80%가 넘는 학습자들이 영어 단어 학습 시, 발음 및 강세는 학습하지 않고 단어의 철자와 의미 학습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음과 강세를 학습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수능이나 내신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26%)이라는 이유였다.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외울 단어의 양이 많고 시간이 없어 강세마저 외울 여유가 없다(16%)라는 응답이었다.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교육과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철저히 입시 위주로 영어교육이 행해지면서 발음과 강세가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 학생들이 이를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들의 응답 중 어렸을 때부터 발음과 강세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배워오지 않았고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10%)는 응답이 눈길을 끈다. 이 응답은 대부분 상반 학생들에게서 나온 응답으로 학생들이 강세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기회가 부족하여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동안 발음과 강세를 학습하도록 지도하지 못했던 영어 교수자들에게 의미있는 대목이다.

철자 및 뜻과 함께 발음과 강세도 함께 학습한다고 응답한 10명의 학생 중 6명이 발음과 강세를 학습하면 단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자연스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발음과 강세를 학습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3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60명 중 10명만이 강세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는 발음과 강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강세 학습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항인 발음 및 강세를 학습하는 경로에 대한 질문은 복수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영어 선생님의 발음으로 학습한다는 학습자가 24명(33.3%), 인터넷이나 휴대폰 어플을 이용한다는 학습자는 28명(38.9%), 발음기호를 보고 직접 학습한다는 학습자가 14명(19.5%), 기타 학습방법을 제시한 학습자는 6명(8.3%) 이었다. 기타의 방법으로 ‘듣기 문제집’, ‘영화나 미국드라마를 통한 학습’이나 ‘부모님, 친구 등에게 물어보고 학습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70%가 넘는 학생들이 휴대폰 어플이나 인터넷 등을 주로 이용하거나 학교 영어선생님의 발음으로 강세를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응답의 비율이 비슷하였는데 인터넷 및 전자기기도 사용하지만 여전히 영어선생님의 발음에도 의존하고 있다는 통계는 교실 안에서 교수자가 명확한 발음과 강세로 시범을 보여줘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 번째 문항인 ‘학교 영어선생님께 강세지도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에 는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0명(16.7%)이었고, ‘아니다’ 라고 답한 학생이 60명(83.3%)으로 조사되었다. 80%가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강세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강세 학습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erwing과 Munro(2005)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교

사들 또한 본인들의 학창시절에 강세 지도를 받아 본 경험이 없고, 자신감 부족으로 발음 및 강세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네 번째 문항인 ‘강세가 발음과 의사소통에 얼마나 중요한가’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12명(20%), ‘그렇다’는 24명(40%), ‘보통이다’는 21명(35%), ‘아니다’는 3명(5%), ‘전혀 아니다’는 0명으로 나타났다. 60%의 학생들이 영단어의 강세가 의사소통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다섯 번째 문항인 ‘학교에서 강세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명(5%), ‘그렇다’는 16명(26.7%), ‘보통이다’는 29명(48.3%), ‘아니다’는 12명(20%), ‘전혀 아니다’는 0명으로 나타났다.

60%의 학생들이 강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강세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한 비율은 32% 정도에 그쳤다. 강세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학교 영어시간에 강세를 배워야 한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EFL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학교 밖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도 의사소통 강화 기능에 관한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강세 학습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2. 강세 표기와 강세 실현

설문지의 PartⅡ에서는 주어진 단어 44개의 뜻을 쓰고 각 단어의 강세를 모음 위에 표기하게 하였고, PartⅢ에서는 자신이 표기한 강세를 바탕으로 그 단어를 읽어 보도록 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학생들은 단어의 강세를 정확히 표기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학생들이 발화한 자료를 분석하는 중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강세를 표기한 것과는 별개로 발화할 때 강세를 더 잘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음절에 강세가 있는 Japan의 경우 Jápán처럼 잘못된 표기를 해놓고 실제 녹음에서는 Jápán으로 정확하게 발화하였다.

표 2

단어의미, 강세표기, 강세발화, /ə/ 발음 평균 비교

반 구분	단어의미	강세표기	강세발화	/ə/ 발음
상반	38.69	28.23	34.11	29.51
중반	25.88	13.80	19.24	14.52
전체	33.35	22.22	27.92	23.26

Note. 44점 만점

본인이 표기한 것과 다르게 강세를 정확히 발화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상반과 중반을 나누어 강세실현 대비 강세표기 정답률이 50% 미만으로 측정된 학생들을

선정해보니 의외로 상반과 중반의 학생들의 숫자가 비슷하였다. “표기할 때보다 말할 때 강세를 더 정확히 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강세를 주면서 말하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강세를 직접 찍는 것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강세가 사전에 있는 것을 보긴 하지만 직접 공부하진 않고 듣고 말하는 것은 여러 번 해봤으니까 들었던 대로 말했어요.”(상반 남학생 A)

“강세를 표기하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단어를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듣고 말하면서 단어를 익힌 적이 훨씬 많아서 (설문지 할 때는) 발음해보고 강세 있을 것 같은 곳에 그냥 찍은 거예요.”(상반 남학생 B)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어서 발음은 따라 하는데, (강세를) 찍으라고 하면 그게 어디 있는 건지 공부한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단어를 공부할 때는 쓰면서 말하면서 외우는데, 그렇게 하면 더 잘 외워지고 집중이 잘돼요.”(상반 남학생 C)

“평소 읽는 대로 읽었어요. 표기한 것과는 상관없이. 강세를 어디에 다 주고 이런 것 배워본 적은 한번도 없어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어디는 강하게 발음해라 한적은 학원에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중반 여학생 A)

“사전을 찾아서 발음을 들으니까 들은 것대로 말할 때는 (강세가) 정확히 나온 것 같아요. 단어는 읽어보면서 공부하고, 발음을 모르는 단어는 항상 찾아보며 공부를 해요. 발음을 알면 연상이 잘되고 쉽게 외워져요.”(중반 여학생 B)

“저는 미드를 보고 들어서 발음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서에도 강세가 나오지 않고 여태까지 선생님들도 (강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중반 여학생 C)

면담 결과가 보여주듯이, 학생들은 강세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강세를 표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말할 때는 자신이 표기한 것과는 별개로 그 동안 본인이 공부하면서 들었던 단어의 발음을 기억하여 발음한 것이다. 김영아(2008)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영어 단어의 강세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영어 교육자나 매체 등을 통해 반복해서 습득한 단어에 친숙해져 어느 음절이 강조되는지는 알고 있는 듯하다.

표기대로 강세를 읽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사전의 발음 기호에 나와 있는 강세 표기를 혼자 보고 읽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예측되며 따라서 명시적인 강세 학습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반대로 말하면 학생들이 강세표기 및 발화법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면 강세 습득 및 정확한 발음 실현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전 등에 음성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사가 강세표기를 읽는 방법이라도 먼저 지도해준다면 지원되는 음성발음을 듣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에는 발음 기호만 보고도 강세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체 피험자들의 단어의 의미 점수(33.35)와 강세발화 점수(27.92)를 비교해 보면 분반의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단어의 의미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 그만큼 강세는 정확히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3. 비강세 모음 /ə/의 실현

위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ə/ 발음 평균(23.26)이 강세발화 평균(27.92) 보다 4.66점 낮게 나타나 학생들이 강세를 실현한 것에 비하여 비강세 모음 /ə/의 발음은 잘 실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을 나누어 살펴보면, 상반 학생들의 /ə/ 발음 점수(29.51)는 중반 학생들의 점수(14.52)에 비하여 14.99점 높았으며, 이는 영어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비강세 모음 실현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세를 정확히 실현한 단어들만 선별하여 그 중에서 /ə/ 발음은 얼마나 정확히 실현하였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약 79점에 그친다. 학생들이 강세가 있는 음절은 강하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비강세 음절의 약화에 대한 인지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은 음절 별로 나누어 /ə/ 발음의 실현률을 나타낸 결과표이다. 상반과 중반을 합한 전체 실현률에서 알 수 있듯이 단어가 길어질수록 /ə/ 발음의 정확도가 떨어졌다.

표 3
음절 수에 따른 /ə/ 발음 실현률

반 구분	2음절	3음절	4음절
상반	75.00	63.36	60.20
중반	45.33	29.41	22.29
전체	62.64	49.22	44.40

Note. 100점 만점 환산

박순복(2004)과 이지연(2010)도 단어의 음절수가 많아 질수록 피험자들이 발

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더 많은 강세 오류를 범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ə/ 발음에 대한 결과도 그와 일맥상통했다. 상반과 중반의 실현률의 차이는 음절 수에 상관없이 상반 학생들이 중반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로 더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상반과 중반 모두 3음절 단어의 실현률은 2음절 단어의 실현률에 비해 많이 낮지만 4음절 단어의 실현률과 3음절 단어의 실현률의 차이는 비교적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음절 수 별로 강세가 오는 위치에 따라 단어를 그룹화하여 /ə/ 발음 실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2음절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첫 음절에 강세가 오는 단어가 둘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단어보다 /ə/ 발음 실현률이 5.84% 높았다. 4음절도 마찬가지로 첫 음절 60%, 둘째 음절 44.50%, 셋째 음절 28.33%의 실현률을 보이며 강세 위치가 첫 음절에 올 때 실현률이 가장 높고 강세가 뒤 음절로 갈수록 실현률이 점점 낮아졌다. 첫 음절에 강세가 있을 때 /ə/ 발음 실현률이 높은 것은 한국어를 말할 때 첫 음절부터 강하게 발화하는 모국어 습관의 영향으로 단어 강세가 비교적 정확히 실현되기 때문에 더불어 /ə/ 발음이 더 잘 실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3음절 단어는 첫째 음절보다 둘째 음절에 강세가 올 때 /ə/ 발음 실현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둘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단어들 (museum, vanilla, familiar, umbrella, banana)이 첫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단어들에 비해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난이도가 낮은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이었다면 2음절, 4음절 단어들과 같이 첫 음절에 강세가 올 때 실현률이 높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2음절 단어에서 첫째 음절에 강세가 있을 때 /ə/ 발음을 가장 잘 실현하였고, 반대로 4음절 단어에서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단어(academic, combination)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ə/ 발음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비강세 모음 /ə/의 발음 오류 분석

피험자들이 비강세 모음 /ə/을 어떻게 잘못 발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피험자 60명 중 과반수인 30명 이상이 /ə/ 발음 오류를 범한 단어를 선별하여 오류 실태를 분석하였다. 아래 표 4는 학생들이 발화한 단어마다 /ə/ 발음의 오류와 그 빈도수, /ə/를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발음 기호로 표기하여 나타낸 것이다.

학생들이 범한 오류 패턴은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policy와 같이 철자 i가 /ə/로 약화된 /paləsi/를 /palɪsi/와 같이 /i/로 발음하는 경우가 가장 흔했다. 이는 한국사람들이 i를 발음할 때 한국어 모음 ‘이’에 대치시켜 발음하여 모음이 제대로 약화되지 않아 발생한 오류이다. ‘팔러씨’를 ‘팔리씨’ 또는 ‘폴리씨’라고 발음한 것이다. modify (더→디), flexible(씨→씨), identity(터→티), compatible(터→티)이 비슷한 경우이다. relevant(러→리)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e임에도 불구하고 ‘레’가 아닌 ‘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4
비강세 모음 /ə/ 발음 오류 실태

음절 수	단어	오류 빈도수	발음기호	발음 오류
2음절	method	35	/mɛθəd/	/mɛθ <u>o</u> d/
	occur	32	/əkɜr/	/ <u>o</u> kɜr/
3음절	concentrate	40	/kənsəntreit/	/kəns <u>ɛ</u> ntreit/
	camera	40	/kæməɾə/	/kə <u>m</u> ɾə/
	policy	36	/pələsi/	/pəl <u>i</u> si/
	relevant	40	/rɛləvənt/	/rɛl <u>i</u> vənt/
	estimate	37	/ɛstəmet/	/ɛst <u>i</u> met/
	familiar	48	/fəmiljər/	/f <u>æ</u> miljər/
	modify	31	/mədɔfaɪ/	/məd <u>i</u> faɪ/
	flexible	30	/flɛksəbl/	/flɛks <u>i</u> bl/
4음절	identity	30	/aɪdɛntəti/	/aɪd <u>ɛ</u> ntiti/
	immediate	41	/ɪmɪdiət/	/ɪmɪd <u>i</u> ɛt/
	community	36	/kəmjunəti/	/kəmjun <u>i</u> ti/
	compatible	39	/kəmpætəbl/	/kəmp <u>æ</u> tɪbl/
	democracy	42	/dɪmkrəsi/	/dɪmkr <u>æ</u> si/
	academic	44	/ækədəmɪk/	/ak <u>ə</u> dɛmɪk/

둘째, 학생들은 강세가 없는 음절의 a를 한국어 모음 ‘아’ 또는 ‘애’로 발음하였다. academic /ækədəmɪk/을 /akədɛmɪk/로 발음하였고, democracy와 familiar를 각각 /dɪmkrəsi/→/dɪmkræsi/, /fəmiljər/→/fæmiljər/로 발음하였다. 반면에 immediate는 /ɪmɪdiət/을 /ɪmɪdiɛt/로 발음하였다. 셋째, concentrate /kənsəntreit/를 /kənsɛntreit/로 발음한 것처럼 강세가 없는 음절의 e를 ‘에’로 발음하였다. 마지막으로, method와 occur에서 강세가 없는 음절의 o를 ‘오’로 발음하였다.

종합적으로, 학생들이 비강세 모음을 /ə/로 약화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a를 ‘아’ 또는 ‘애’, e를 ‘에’, i를 ‘이’, o를 ‘오’, u를 ‘우’로 대치시키는 철자식 발음법에 의존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camera, community와 같은 외래어의 발음도 /kæməɾə/를 /kəmɾə/로 (즉 ‘머’를 ‘메’로) 발음한 학생이 40명이었고, /kəmjunəti/는 /kəmjuniti/로 (즉 ‘너’를 ‘니’로) 발음한 학생이 36명이었다. ‘카메라’, ‘커뮤니티’와 같은 한국 외래어 발음에 익숙한 학생들이 영단어를 발음할 때에도 외래어 발음을 사용한 것이다. 이 결과는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외래어 음성인식이 문자인식 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이보미, 유원호(201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강세를 한 음절에만 주지 않고 모든 음절에 비슷하게 강도를 주어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김수정, 2005; 강민경, 전지현, 2013) 피험자들 역시 ‘카·메·라’와 ‘커·뮤·니·티’로 각 음절을 정확하게 발음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영어에서 강세는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어 특유의 리듬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은 강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어휘 학습 시 단어의 뜻만 암기하고 단어의 강세가 어떤 음절에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세가 있는 음절은 높고, 세고, 길게 발음되고 비강세 음절의 모음은 약화되어 영어의 리듬이 완성되는 것인데, 학생들은 강세의 위치를 알더라도 비강세 모음 /ə/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에게 강세 학습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강세와 비강세 모음의 발음을 명시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ə/ 발음 오류 패턴에서 보았듯이 가장 큰 문제는 영어 모음에 한국어 모음을 일대일로 대치시키는 철자식 발음법에 있다. 김지은과 윤규철(2013)에 따르면 영어 모음과 주로 대응되는 한국어 모음의 음성학적인 음가는 서로 다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강세가 있는 모음뿐 아니라 모음이 약화될 시에 나타나는 발음 또한 함께 가르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즉 강세 있는 음절을 강하고 높고 길게 발음하라고 교육함과 동시에, 강세 없는 음절은 철자 그대로 발음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뺀 ‘어’ 또는 ‘으’로 발음하라는 식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국어 음운으로 표현해주면 /ə/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가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Lee(2007, pp. 116-117)가 제안한 것처럼 present/conduct (명사)와 present/conduct(동사)와 같은 단어의 짝, 또는 The drama was really nice와 The dramatic ending surprised all와 같은 문장의 짝을 통해 강세모음과 비강세 모음의 성질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원어민 화자에게 강세를 포함한 초분절음을 명시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비원어민 화자의 명료도(intelligibility)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Hahn, 2004). 교육 당국과 교사들은 과연 영어교육의 진정한 의미 및 교육과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강세를 비롯한 초분절 요소 교육에 힘써 의사소통 능력이 갖추어진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경, 전지현. (2013).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영어 강세 지도 방법의 효과성 고찰. *새한영어영문학*, 55(4), 139-160.
- 김선희. (2006). 한국의 초·중등 영어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영어 2음절어의 강세 패턴 분석. *한국영어학회*, 6(1), 155-177.
- 김수정. (2005). 영어 비강세 약모음 schwa /ə/의 음성실현. *음성과학*, 12(4), 167-

180.

- 김영아. (2008).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단어강세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김지은, 윤규철. (2013). 강세에 따른 영어 모음의 포먼트 변이와 모음 발음 교육에의 응용. *말소리와 음성과학*, 5(2), 53-58.
- 김지은. (2014).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강세 실현과 모음 포먼트에 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6(1), 39-45.
- 박순복. (2004). 한국인의 영어 강세 오류의 특징. *영어어문교육*, 10(3), 177-190.
- 김희성, 서미선, 신지영, 김기호. (2005). 초급 영어 학습자의 약강구조 영어 단어에서의 강약음절 산출. *음성과학*, 12(3), 175-183.
- 유원호. (2016). *영어 듣기 발음 절대 매뉴얼*. 서울: 넥서스.
- 유원호. (2017). *Speaking 절대 매뉴얼*. 과주: 넥서스.
- 이보미, 유원호. (2017). 영어 외래어 표기가 한국 고등학생의 외래어 원음 음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등영어교육*, 10(2), 75-89.
- 이지연. (2010). *문자음성 제시에 따른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단어 강세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조현관. (2010). 영어 schwa /ə/에 대한 음성분석. *한국현대언어학회*, 26(2), 359-372.
- Celce-Murcia, M., Brinton, D., & Goodwin, J. M. (2010). *Teaching pronunciation: A course book and reference guid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rwing, T., & Munro, M. (2005). Second language accent and pronunciation teaching: A research-based approach. *TESOL Quarterly*, 39(3), 379-397.
- Hahn, L. (2004). Primary stress and intelligibility: Research to motivate the teaching of suprasegmentals. *TESOL Quarterly*, 38(2), 201-223.
- Lee, S. (2007). Learnability effects on the placement of English stress in morphologically derived word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3(1), 93-121.
- Park, M. (2006).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word stress by adult Korean speaker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3(2), 141-169.

부록

본 설문지는 한국 고등학생 영어학습자의 단어 강세에 대한 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반 번 이름:

Part I. 다음 질문을 읽고 자신에게 맞는 문항에 ○표 해주세요.

1. 영어 단어를 학습할 때,
 - ① 철자(spelling)와 뜻만을 주로 외운다. (1-1로)
 - ② 철자/뜻과 함께 발음(강세)까지 함께 학습하는 편이다. (1-2로)
 - 1-1. 발음/강세를 학습하지 않고 철자와 뜻만 외우는 이유는?
()
 - 1-2. 발음/강세를 함께 학습하는 이유는?
()
2. 내가 평소에 영어단어의 발음과 강세를 학습할 수 있는 경로는?
 - ① 영어선생님의 발음
 - ② 인터넷, 전자기기, 휴대폰 어플 등
 - ③ 발음기호를 보고 직접학습
 - ④ 기타 ()
3. 학교 영어선생님(중학교 때 포함)께 강세지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4. 영어단어의 강세가 발음과 의사소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5. 학교 영어시간에 강세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6. 나의 평소 영어점수는?
 - ① 80~100점 ② 60~80점 ③ 40~60점 ④ 20~40점 ⑤ 20점 이하

Part II. 다음 주어진 단어들의 뜻을 써보고 강세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강세를 표시하세요. (해당 모음 위에 강세를 표시하면 됩니다.)

번호	음절	단어	뜻
	예시)	tomórrow	내일
1	2음절	happen	
2		local	
3		method	
4		urban	
5		woman	
6		suppose	
7		occur	
8		achieve	
9		supreme	
10		machine	
11		Japan	
12		command	
13		weapon	

14	3음절	concentrate	
15		camera	
16		holiday	
17		politics	
18		flexible	
19		modify	
20		policy	
21		relevant	
22		sensitive	
23		visible	
24		estimate	
25		terrible	
26		museum	
27		vanilla	
28	familiar		
29	umbrella		
30	banana		
31	4음절	comfortable	
32		temporary	
33		America	
34		apologize	
35		responsible	
36		identity	
37		economy	
38		authority	
39		immediate	
40		community	
41		compatible	
42		democracy	
43		academic	
44		combination	

Part III. 위의 단어를 자신이 표기한 강세를 참고하여 두 번씩 읽어보세요.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대학(Tertiary)

신혜진
 조종고등학교
 12438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연등윗길 22
 Phone: 031-5897-350
 Email: hjshin1110@korea.kr

유원호
 서강대학교 영미어문학과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Phone: 02-705-8340
 Email: iyoo@sogang.ac.kr

Received on March 1, 2018

Reviewed on April 15,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y 15, 2018